

내 마음의 시 한 편

이정하 시인



웬일인가 싶었다, 전역한 지 30년도 더 지났는데 이 상병이라니. 더군다나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나를.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속으로 혀를 차며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러자 다급하게 들려오는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

“나야 나, 김 병장이라니까!”

가만, 그러고 보니 들어본 목소리 같긴 했다. 나는 콧등을 찡그리며 아득히 사라져간 먼 기억을 되살리려 애써봤다.

“누구라고요?”

“나 정말 몰라? 아귀라고도 불렀던 김 병장.”

그때서야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군 시절의 김익준 병장.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귀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참으로 악랄하게 후임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를 떠올리자 갑자기 몸서리가 쳐졌다. 나 역시 그에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가 갈렸다.

“이 상병에게, 아니 이 시인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야. 부탁이니 들어주게.”

하지만 세월은 말이다, 온갖 뽕족한 것을 깎아내려 두리뭉실하게 만든다. 시냇물 속 조약돌처럼. 내가 지나온 어느 한 시기, 물살은 흐르고 흘러 그에게 가졌던 원망이나 미움 또한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신통할 지경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난...”

그렇게 풀어놓은 그의 이야기는 나로선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요점은 이렇다. **군 생활을 하던 그때 자신은 최악의 상태였다고**, 집안이 쫓딱 망해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 와중에 아버진 행방불명이 됐고, 철석같이 믿고 믿었던 애인마저 변심했을 땐 정말 살기 싫었노라고. 그래서 후임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이 대목에서 나는 한 마디 항변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그의 다음 이야기가 내 머리를 가우뚱거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자네가 화장실 벽에 붙여놓은 시 한 편.”

이건 또 무슨 이야긴가? 뜬금없이 시라니. 한 해가 지나도 아버지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의 시름이 큰 병으로 도졌다는 연락이 왔을 때 거의 미칠 지경이라고 했다. 낙담과 절망은 그를 최악의 선택으로 몰아갔고, 결국 그날 아침 목을 매려고 화장실을 찾았는데 문득 시 한 편이 눈에 띄더라.

그때서야 나는 또 기억이 떠올랐다. 그 무렵 나는, 훈련 중 연병장에 이는 먼지처럼 건조하고 딱딱한 군 생활을 나름 이겨보려 시간이 날 때마다 행정반 사무실에서 시를 타자로 치곤했다. 전우들도 한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화장실 칸칸이 붙여두곤 했는데, 아마도 그는 그시를 본 듯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로 시작하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그 시를 읽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따지고 보면 별 내용도 아니었던 그 시 한 편이 자신의 얼어붙은 가슴을 그렇게나 녹일 줄 몰랐다고.

부드럽게 녹은 가슴으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다시 살피보게 됐는데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가 돌아난 것은 물론이다. 그 후 비교적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기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그는 나에게 전해왔다. 그래서 내게 고마웠고,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노라고.

내 사랑을 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님을 눈

치해주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어쩌면 그 사람의 일생까지 시가 바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다. 때로 우리 삶에는 수백 마디의 말보다 한 편의 시가 절실한 순간이 있다. 급히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이 걸어온 길과 그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게 해 우리 영혼을 맑게 정화시켜 주는 한 편의 시.

시를 읽으면 우선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런 후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등의 거창한 말은 굳이 필요 없을 듯싶다. 땅이 마르면 갈라진다. 나뭇가지가 마르면 부러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시를 읽으면 다른 무엇보다 마음이 촉촉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황량하고 메마른 마음에 풀꽃 하나가 촉촉이 피어나는 그 행복감 하나면.

노래방에서 목청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도,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한없는 수다를 떨어도 가슴 한 구석 허전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하루에 3분만 투자해보길 권한다. 시 한 편 읽는 그 3분으로 당신의 삶은 더없이 진실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

※이정하 : 시인. 1962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건고·원광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대전일보·경남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시집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그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한 사람을 사랑했네> <다시 사랑이 온다>. 산문집 <우리 사는 동안에1·2> <돌아가고 싶은 날들의 풍경>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우느라 길을 잃지 말고> 등을 출간했다.

※본문의 갈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접역(點譯)했습니다.